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물가*

— 음식 가격을 중심으로

朴賢洙**

- | | |
|---------------------------------------|---------------------------------------|
| I. 식민지시대 물가에 주목하는 일 | IV. 고급 음식과 거친 음식 가격의 간극;
1930년대 후반 |
| II. 조선음식과 화양절충의 음식;
1920년대 | V. 현재 가격으로의 환산과 다른 품목의
물가 |
| III. 미곡가의 추이와 기호 식품의 가격;
1930년대 전반 | |

• 국문초록

이 글은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가격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식민지시대 물가에 접근하려 했다. 소설에 나타난 돈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은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설에 나타난 삶이나 일상을 재구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기영의 『인간수업』에는 당시 선술집에서 술 한 잔과 안주 하나를 먹거나 술국에 밥을 말아 먹는 데 5전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발표된 김낭운의 「냉면」에는 냉면을 사오라며 25전을 주는 장면이 나오며, 도쿄대 진재 직후를 다룬 「진재전후」에는 라이스카레가 우동이나 소바보다 비쌌으며 오야코동과 비슷하다고 되어 있다.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이북명의 「민보 씨의 생활표」는 1930년대 전반기 쌀 한 말에 2원에서 2원 50전이었음을 말해준다. 1930년 전후 쌀값이 폭락한 데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강제한 ‘산미증식계획’이 작용하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3574)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교수

있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낙랑파라에서 커피를 마시고 10전을 내는데, 커피 값은 전시 체제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었다. 1930년대 후반 연재된 김말봉의 『찔레꽃』에는 조선호텔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코스 요리의 가격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원 50전, 2원, 3원 50전이였다. 김웅초의 「망부석」, 이태준의 『청춘무성』을 보면 바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는 데 50~70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는데, 맥주의 가격 역시 크게 변동이 없었다. 금의 가격이 물가 수준이나 추이를 따지는 데 효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식민지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음도 다루었다. 식민지시대 음식 가격은 1920년대 기준에서 1930년 전후 25~30% 정도 가격이 인하된다. 1933, 4년이 되면 이전 가격으로 회복이 되었다가 1937, 8년 전시 체제에 돌입하면 30~40% 정도 인상이 된다. 식민지시대 음식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려면 1원에 50,000~60,000을 곱해야 한다. 교사, 기자, 은행원, 기수 등 식민지시대 급여를 현재로 환산하는 것 역시 앞선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지시대 경성의 주택 가격을 현재로 환산하려면 음식 가격을 환산한 비율에서 다시 6~12를 곱해야 한다.

주제어 : 식민지시대, 물가, 냉면, 쌀값, 코스 요리, 맥주, 현재 가격, 급여, 주택 가격 등

I. 식민지시대 물가에 주목하는 일

김동인은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감자」를 발표한 바 있다. 「감자」는 소작, 막별이, 구걸, 매춘 등으로 이어지는 복녀의 고단한 삶을 좇는다. 열다섯 살 때 홀아비에게 80원 팔려간 복녀는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나서는 하루 32전 버는 송충이 잡이를 나갔다. 감자를 훔치러 갔다가 중국인 왕 서방과 관계를 가지고는 이후 1원에서 3원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을 이어갔다. 부인을 들이던 날 왕 서방에게 강짜를 부리다 죽은 복녀는 30원을 쓰고서야 묘지로 갈 수 있었다.¹⁾

염상섭은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삼대』를 연재한다. 『삼대』 후반부에는 피혁이 가지고 온 자금 2,000원 가운데 병화가 1,700원을 맡아가지고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 병화는 ‘산해진’이라는 식료품 가게를 얻는 데 400원을 쓰고, 다시 가게에 물건을 들여오는 데 5, 600원을 사용한다. 병화를 비롯해 필순이, 그녀의 아버지 등이 장훈의 패거리들과 경찰에게 험한 꼴을 당한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삼대』에서 직접 언급되듯이 2,000원은 ‘붉은 돈’, 곧 해외에서 유입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자금이었다.²⁾

「감자」에서 21년에 걸친 복녀의 삶에는 곤궁이 묻어나는데, 소설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32전, 1원~3원, 30원이라는 돈이다. 『삼대』에 등장하는 2,000원 역시 소설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가늠하는 데도 관건이 된다. 문제는 지금의 연구자나 독자가 1920년대 중반 32전, 1원~3원, 30원, 또 1930년대 전반 2,000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돈이 복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는 데서, 또 『삼대』의 전개와 주제를 가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돈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그 한계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 돈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설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당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돈은 화폐경제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존재였다. 그럼에도 문학 작품, 특히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돈의 실상과

1) 김동인, 「감자」, 『조선문단』 4호, 1925.1, 18~25면 참조.

2)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7.16.~8.24. 참조.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아하게 느껴진다. 이를 고려하면 소설에 등장한 돈에 엄밀히 접근하는 혹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논의는 식민지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이나 일상을 재구하는 일과 연결되는 작업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식민지시대 물가에 대한 연구가 개진된 바는 없다. 식민지시대의 물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식민지시대 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주된 분석의 대상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후 『통계연보』라고 칭함.)이다. 『통계연보』는 조선총독부에서 1908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조선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통계화한 결과를 발행한 것이다. 『통계연보』는 인구·가구, 농림, 어업, 광공업, 상업, 건설·주택, 교통·정보통신, 교육·문화 등과 함께 고용·노동·임금, 재정·금융·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³⁾

식민지시대 물가에 관해서는 『통계연보』를 대상으로 식민지시대 8대 도시의 소비재 가격과 택지 임대료, 또 임금을 파악해 도시에 따른 차이를 밝힌 연구가 제기된 바 있다.⁴⁾ 역시 식민지시대 도시들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을 파악한 후 그것과 물가가 어떤 격차를 지니는지에 주목한 논의 역시 개진되었다.⁵⁾ 또 『통계연보』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가 영리법인으로 정의된다는 데 주목해 식민지시대에 신설되고 해산된 회사 수, 매년 존재했던 회사 수를 밝히기도 했다.⁶⁾ 한편 이여성과 김세용이 1931년

3) 통감부가 관할을 했던 1907년에서 1909년까지는 『통감부통계연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가,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통계연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송규진, 「조선총독부의 사회경제조사 내용분석」,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 1~21면 참조.

4) 차명수,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가격」, 『경제사학』 50, 경제사학회, 2011, 3~38면; _____, 「식민지시대의 도시간·직종간 비숙련 임금 격차」, 『경제학연구』 59(1), 55~93쪽 참조.

5) 박기주, 김낙년, 「해방전 조선의 임금 재론」, 『경제사학』 49, 경제사학회, 2010, 9~27면; 박기주, 「식민지기 조선의 도시 간 물가 및 임금 격차」, 『경제사학』 54, 경제사학회, 2013, 11~33면 참조.

6) 『통계연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식민지시대에 재원마련을 위해 시행된 토지 임대가격 조사사업의 실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쌀시장이 일본의 그것과 통합되는 추이 및 양태를 분석한 논의 역시 개진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김두열, 「식민지 조선의 회사 수」, 『경제사학』 56, 경제사학회, 2014, 157~169면; 조석곤, 「식민지 말기 지세제도의 변화와 그 역사적 의의」, 『국제경상교육연구』 9(1),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2012, 91~103면;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쌀 가격의 계절 변동」, 『경제사학』 75, 경제사학회, 2021, 47~61면 참조.

부터 1935년까지 발행한 『숫자조선연구』라는 책을 대상으로 여러 사회 분야의 연도별 통계와 그 추이를 정리한 연구 역시 개진된 바 있다. 7)

그런데 이들 논의가 식민지시대 물가의 수준과 추이에 대해 엄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 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가격의 실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얻기는 힘들다. 또 개별 품목의 가격을 지금 현재로 환산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선 논의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계연보』 자체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연보』가 다루는 항목 가운데는 상업, 고용·노동·임금, 재정 등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2집의 조선 내 금융자본이나 민족별 자본 총관, 또 5집의 조선공업의 현상 등이 서술된 『숫자조선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필자가 직접 1922년, 1931년, 1936년 등의 『통계연보』를 검토해 보니 상업의 경우 산업조합수, 산업조합원수 등을 제시한 후 그것이 전년에 대비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밝히고 있었다. 또 상품에 대한 판매나 구매 역시 총수를 제시한 후 역시 연도별 증감 비율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상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임금, 재정 등을 비롯해 나머지 항목들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났다. 『숫자조선연구』 역시 연도별 통계와 그 추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데서는 성격이 다르지 않았다.

『통계연보』, 『숫자조선연구』 등에는 항목을 준거로 전년과 비교된 시기별 추이는 나타나지만 개별 품목의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통계연보』를 대상으로 한 선행 논의에서 『통계연

보』의 항목이 식민 통치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바뀌었으며 사회경제의 규모가 확장되어 항목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8) 통계 수치가



〈그림 1〉 1931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임. 간행은 1933년에 되었음. 이미지의 출처는 일본 국립국회디지털도서관(<https://dl.ndl.go.jp/pid/1454691/1/223>)임.

7) 이계형, 전병무 편저, 『숫자로 본 식민지 조선』, 역사공간, 2014, 8~15면 참조.

8) 송규진, 앞의 2016 논문, 17~25면 참조.

공개되지 않거나 다른 분야와 통합되어 나타나는 항목 역시 존재한다는 지적⁹⁾ 역시 이와 연결된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930년 11월 『동아일보』에 게재된 「물가 점점 하락 음식가가 제일 착」, 「각지 물가 감하 불감처엔 비난성」이라는 기사는 식민지시대 물가에 접근하는데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이 기사들은 1930년 전후 쌀값이 폭락해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칠 때의 기사이다. 기사는 “감하된 물가의 가격은 종류가 다수함으로 일일이 보도할 수 없”¹⁰⁾지만 그럼에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육, 돈육, 탕반, 냉면 등의 음식과 막걸리, 약주, 소주 등의 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음을 보도한다.¹¹⁾

한편 1939년 1월과 4월 『조선일보』에는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물가는 계속 양등」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이들은 중일전쟁의 발발 등 본격적인 전시 체제와 맞물려 물가가 인상될 때의 기사이다. 이들 기사에서는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전쟁 전과 후의 물가를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두 글에서 양등된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품목은 쌀, 보리, 콩, 조 등의 곡물과 함께 고기, 계란, 두부, 고등어, 간장, 된장, 설탕, 맥주, 사이다 등 대부분 음식이다.¹²⁾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1930년의 첫 번째 기사의 제목처럼 ‘물가가 점점 하락’하는데 그 가운데 ‘음식가가 제일착’이라는 부분이다. 1939년의 기사 역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중일전쟁 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밝히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마찬가지였다. 물가가 오르내릴 때 음식 값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식민지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는 5장에서 급여, 의류 값과 함께 음식의 가격이 당시의 물가를 가장 적실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식민지시대의 물가를 파악하는 데 음식의

9) 이명하, 「일제시기 조선재정통계서의 발행체제와 구성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학회, 2016, 214~220면 참조.

10) 「물가 점점 하락 음식가가 제일착」, 『동아일보』, 1930.11.9, 6면.

11) 「물가 점점 하락 음식가가 제일착」, 위의 신문, 같은 날짜, 같은 면; 「각지 물가 점차 감하」, 『동아일보』, 1930.11.12, 6면; 「각지 물가 감하 불감처엔 비난성」, 『동아일보』, 1930.11.18, 6면 참조.

12)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조선일보』, 1939.1.15, 8면; 「물가는 계속 양등」, 『조선일보』, 1939.4.7, 2면 참조.

가격에 주목하려는 먼저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음식의 가격에 주목하는 다른 이유는 식민지시대 쌀값과 금값이 물가 파악에 유용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쌀이나 금의 가격은 물가 수준이나 추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항목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3장에서 상론하겠지만 쌀은 1920년대 초 가장 비쌌다가 1930년 전후 가격이 1/3까지 폭락한 후 1930년대 말 전시체제에 이르러서야 1920년대 초 가격을 회복한다. 거기에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강제한 ‘산미증식계획’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금값은 1920년대, 1930년대를 거쳐 3~4배 정도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쌀값과는 다르게 변동되었다. 하지만 1930년 전후 쌀값 폭락으로 물가가 인하될 때 금값만이 큰 폭으로 올랐ادن지 설사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식민지시대에 걸쳐 인상 비율이 다른 품목들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글은 식민지시대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가격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물가에 접근하려 한다. 문학, 특히 소설은 식민지시대의 음식 가격을 해명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중심인물과 다른 인물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그 전개를 양식적 성격으로 한다. 소설에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다방이나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지며, 특히 얼마를 지불했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식민지시대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에 안주 하나가 5전이었음을 말해준다. 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는 ‘낙랑파라’에서 커피 한 잔에 10전이었으며, 역시 10전 짜리 담배 ‘피죤’을 팔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음식과 그 가격이 나타난 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가격의 실제 및 변동을 파악하려 한다. 냉면, 비빔밥, 설렁탕, 장국밥 등 조선음식은 물론 라이스카레, 비프가스, 돈가스 등 일반적으로 ‘화양절충’의 음식으로 파악되는 음식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또 다방에서 팔았던 커피, 홍차, 사이다, 칼피스 등과 카페에서 판매했던 맥주 등의 음료 가격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비쌌던 조선호텔의 코스요리 가격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안주 하나를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선술집의 술값이 얼마였는지, 그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역시 논의의 대상이다.

이 글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식민지시대의 급여, 주거비용, 교통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음식은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었지만, 급여, 주거비용, 교통비 등 다른 물가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감자」와 『삼대』라는 소설을 예로 들어 그 필요에 대해 언급했지만, 음식 가격을 비롯한 식민지시대의 물가를 현재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추론해 보려 한다.

Ⅱ. 조선음식과 화양절충의 음식; 1920년대

1927년 10월 잡지 『별건곤』에는 경성 시내 음식점 상황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다. “경제가 피폐해가고 살림이 쪼그라”드는 가운데도 “부쩍 늘어가는 것이 경성 시내의 음식점”¹³⁾인데, 그 중에서도 ‘선술집’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고 했다. 1943년 11월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해 발표한 「경성부내 접객업자 분포 상황」에도 접객업소 2,562개 중에서 1,167개가 선술집이라는 데서도 선술집의 증가와 비중은 식민지시대 말까지 이어졌음을 말해준다.¹⁴⁾

식민지시대 음식점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했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데는 얼마가 들었을까? 1920년대 선술집의 가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설로는 「운수 좋은 날」이 있다. 「운수 좋은 날」은 1924년 6월 『개벽』에 발표된 현진건의 소설로 인력거꾼 김 침지를 중심인물로 한다. 김 침지는 열흘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을 맞아 연이어 손님을 태우게 된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 침지는 우연히 마주친 친구 치삼이와 함께 선술집에 들리게 된다.

「운수 좋은 날」은 선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독특했음을 말해 주는데, 술을 주문하면 안주는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다. 그렇다고 안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3) 「추탕집 머슴으로 잇흘 동안의 더부살이」, 『별건곤』 9호, 1927.10, 20면. 이하의 인용문의 표기법과 띄어쓰기는 현대식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14) 경성상공회의소 조사과, 『京城に於ける接客業者に關する調査』, 1944.1, 3면. 여기에서는 최규진, 「경성의 명물’ 선술집과 음주의 위계」,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18, 206면 〈표 2〉 참조.

이 너저분하게 늘어 놓인 안주 탁자, 김 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도 하고 추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¹⁵⁾

김 침지는 선술집에 들어서자 마음대로라면 모든 안주를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막걸리 곱빼기를 시키고 빈대떡 두 개를 먹었으니 막걸리 한잔에 안주 하나를 먹은 셈이다. 김화진의 글에도 요즘은 술과 안주를 각각 계산하지만 그때는 술 한잔에 무슨 안주든지 하나를 먹고 술값만 내면 되었다고 했다.¹⁶⁾ 탕, 국 등 보통 술국이 라고 불리던 음식은 기본으로 제공되었는데, 밥과 같이 먹을 경우에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선술집에서는 술 한 잔에 얼마나 했을까? 「운수 좋은 날」에서 김 침지는 치삼이와 함께 막걸리 곱빼기를 다섯 잔씩 마신다. 그러고는 술값으로 1원을 내었으니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이 5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전의 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겠다. 술을 시키면 안주를 곁들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선술집에만 있던 셈법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존재했던 내외주점, 시골 주막, 모숫집에서도 술값을 내면 안주를 그냥 먹는 것이 통용되었다.¹⁷⁾

이기영의 장편 가운데 『인간수업』이라는 소설이 있다. 1936년 1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소설로, 이기영에게는 『고향』에 이어지는 두 번째 장편이었다. 소설의 중심인물은 장안의 부호 준석의 외아들이자 철학을 공부한 현호다. 현호는 독립생활을 위해 노력하던 중 제대로 된 독립을 위해서는 노동을 체험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깨닫는다. 현호가 시골에서 농사짓던 천식과 함께 지게로 손님의 짐을 지어다주는 막노동을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현호와 천식이 청계천 옆에 있는 선술집을 찾은 것은 처음 지렛일을 경험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겪어 보는 지렛일에 배가 고팠는지 선술집에 들어서자 먼저 술국

15) 현진건, 「운수 조흔 날」, 『개벽』 48호, 1924.6, 145면.

16) 강명관은 조선시대 금주령과 술집에 대한 논의에서 김화진을 조선시대 사회 풍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고 그가 쓴 글을 구한말 술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자료라고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화진, 『韓國의 風土와 人物』, 을유문화사, 1973, 239면;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131~146면 참조.

17) 「大京城 明暗 二重奏(5)」, 『조선중앙일보』, 1936.1.7.

을 곱빼기로 받아 서둘러 밥을 말아 먹는다.¹⁸⁾ 『인간수업』에서 현호와 천식이 술국을 곱빼기로 받아 밥을 말아먹는 데 든 돈은 얼마였을까? 선술집에서 국밥은 5전이었는데, 둘 다 곱빼기로 먹고 7전을 낸다. 앞서 국, 탕 등은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밥과 같이 먹을 때는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호와 천식이 그 경우였다.

그리고 『인간수업』을 통해 1930년대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는 가격이 192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술과 안주의 값을 따로 받아 가격을 인상한 때도 있었다. 먼저 1918년 술 한 잔을 4전으로 하고 안주를 따로 팔자 매상이 줄고 손님들이 안주는 먹지 않고 술만 마셨다고 한다. 또 1934년에도 술과 따로 안주 값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36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손님이 줄어서 준비했던 안주를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¹⁹⁾

1920년대 외식 메뉴 가운데 가장 즐겨 찾던 조선 음식으로 설렁탕, 장국밥과 함께 냉면이 있었다. 냉면집이 평양에서 옮겨와 경성에 문을 연 것은 이미 19세기 후반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성에 진출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냉면의 경성 진출은 1910년대 초 30만 명에서 1930년대 중반 70만 명으로 늘어난 경성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²⁰⁾ 그렇다면 1920년대 경성에서 냉면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당시 냉면의 가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설로는 1926년 12월 『동광』에 발표된 김남운의 「냉면」이 있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순호는 S신문사의 기자로, 그날은 밀렸던 월급을 받은 날이었다. 순호는 전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냉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냉면 생각에 전차에서 ‘패스’를 ‘냉면’이라고 잘못 말하고는 부끄러움에 그냥 집으로 향하고 만다. 여기에서 김순호가 원래 말하려 했던 ‘패스’는 전차를 공짜로 탈 수 있었던 기자증 정도 되는 것이었다.²¹⁾ 집에 돌아간 순호는 어머니, 동생 둘, 아이들 둘, 셋째를 임신한 아내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보고 새삼 가정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먹지 못한 냉면이 계속 떠올랐던지 동생에게 냉면을

18) 이기영, 『인간수업』, 『조선중앙일보』, 1936.3.31. 3면.

19) 술값과 안주 값을 따로 받게 하려는 정책에 번번이 실패한 데 관해서는 최규진, 앞의 논문, 앞의 책, 2018, 4장 참조.

20) 김남천, 백석 외, 『평양냉면』, 가가날, 2018, 74~76면 참조.

21) 현진진은 『백조』 2호에 발표한 「몽롱한 기억」에서 ‘작년 시월’ 해운대로 가는 기차에 ‘파쓰 덕분으로 이등’에 탔다는 언급을 했다. 현진진, 「몽롱한 기억」, 『백조』 2호, 1922.5, 133~134면 참조.

사오라고 시키며 25전을 건넨다.

〈표 1〉 1920년대 음식의 가격과 등장 소설

음식	가격	등장 소설	비고
선술집 술 값	5전	「운수 좋은 날」, 「산적」	술과 안주의 값을 따로 받아 가격을 인상한 때도 있었음.
냉면	20~25전	「냉면」	
라이스카레	15~20전	「진재전후」, 『인간문제』	백화점 식당과 카페에서는 조금 더 비쌌음.
비프스테이크	50전	『무지개』	비프스튜 가격도 등락이 있었지만 비프스테이크와 같았음.

1930년 11월 『동아일보』에 실린 「물가 점점 하락 음식가가 제일착」, 「 시내 각 음식점 요리도 감하」 등의 기사를 보면 냉면 값을 20전에서 15전으로 내렸다가거나 혹은 조선냉면을 15전에서 10전으로, 중국 우동을 20전에서 15전으로 인하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²²⁾ 1930년대 즈음 음식 가격을 비롯한 물가 인하는,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당시의 쌀값 폭락과 맞물려 있었다. 신문의 기사는 인하 전 냉면 값이 15~20전 정도라고 했는데, 김남운의 「냉면」은 1920년대 경성에서 냉면 값이 25전인 곳도 드물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냉면 가격은 1930년 전후 인하되었다가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다시 25전까지 오르게 된다.

‘라이스카레’는 일본을 거쳐 조선에 유입된 서양요리 가운데 비교적 일찍 정착된 음식이었다. 1925년 4월 『동아일보』의 기사 「서양요리제법」에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으며, 1925년 이후 신문, 잡지 등에는 조리방법이 꾸준히 소개된다.²³⁾ 1935년 5월 『동아일보』의 기사에 실린 라이스카레가 이미 조선에서도 궁벽한 시골을 말고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언급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²⁴⁾

그런데 다른 서양이나 일본 음식과 마찬가지로 라이스카레도 처음 조선에 유입되었을 때는 음식점에서 판매했다. 라이스카레는 어디서 팔았을까? 라이스카레는 다른 서양음식과는 조금 달랐다. 돈가스, 고로케 등과 같이 ‘화양절충’의 음식이었기 때문

22) 「물가 점점 하락 음식가가 제일착」, 『동아일보』, 1930.11.9, 6면.

23) 「서양요리제법」, 『동아일보』, 1925.4.20, 6면 참조.

24) 「라이스카레에 대한 인식 부족」, 『동아일보』, 1935.5.3, 4면 참조.

이다. 화양절충의 음식은 서양음식이 일본에 유입되어 변화를 거치면서 서양과 일본 중간 정도의 음식이 된 것이었다.²⁵⁾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23년 도쿄대진재 직후를 다룬 「진재전후」라는 소설이 있다. 1931년 8월 정우홍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인데, 소설은 도쿄대진재의 전후, 정확히는 1923년 1월에서 10월까지 도쿄와 그 외곽 지대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도쿄대진재를 톺아보아 묘사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 특히 대진재 때 조선인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진재전후」의 초반 부분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음식에 관한 대화가 나온다.

이들은 비싼 음식을 먹어 보지 못해 대개 ‘규메시’나 ‘우동’ 같은 음식을 이야기한다. 또 그것보다 조금 비싼 음식이라며 ‘오야코동’과 함께 라이스카레를 먹어 본 것을 자랑한다.²⁶⁾ 여기서 규메시는 고기덮밥, 오야코동은 닭고기달걀덮밥 정도를 뜻한다. 『진재전후』에서의 대화는 라이스카레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먼저는 라이스카레가 간단한 덮밥 종류를 팔던 우동집이나 소바집에서 팔았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대화를 통해 라이스카레의 가격 역시 추정할 수 있는데, 우동이나 소바, 규메시보다는 비쌌으며 오야코동과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림 2〉 1930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전동식당’의 광고임. 이미지의 출처는 『조선일보』(1930.11.8., 7면)임.

옆의 이미지는 1930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전동식당’의 광고이다. 전동식당은 서양과 조선 음식을 같이 파는 식당이었는데, 양식으로는 치킨라이스가 25전, 생선프라이, 돼지고기프라이가 15전이었다. 라이스카레는 15전에 판매해, 치킨라이스보다는 싸고 생선프라이, 돼지고기프라이와 같았다. 한식인 대구탕, 비빔밥, 장국밥, 떡국 등도 15전이었는데, 보통 20전 정도였던 이들 음식의 가격이 15전이었던 것도 앞서 언급했던 당시 쌀값 폭락과 관련되어 있었다.²⁷⁾

25) 岡田哲, 정순분 역, 『돈가스의 탄생-튀김옷을 입은 일본 근대사』, 뿌리와이파리, 2006, 38~44면 참조.

26) 명인, 「진재전후」, 『동아일보』, 1931.8.21, 6면 참조.

27) 「요리치하단행」, 『조선일보』, 1930.11.8, 7면 참조.

장혁주의 『무지개』나 김웅초의 『성녀씨』 등의 소설을 보면 카페에서 여급들이 손님들에게 라이스카레를 사 달라는 장면이 나온다.²⁸⁾ 또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에는 라이스카레가 ‘다마고동’, ‘스시’ 등의 샘플과 함께 미츠코시백화점 식당의 입구에 진열되어 있었다는 부분도 등장한다.²⁹⁾ 『무지개』나 『성녀씨』에서 카페 여급들이 손님들에게 라이스카레를 사 달라고 했던 것은 가게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였으니, 카페에서 라이스카레는 위의 가격보다는 비쌌을 것이다. 백화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중반까지 20전 정도에 판매했다. 일본을 거쳐 조선에 유입된 다른 서양음식의 가격은 어떠했을까? 1930년대 초, 중반에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튜는 40~50전이었고, 비프가스나 돈가스는 25~30전 정도였다.

위에서 선술집, 냉면, 라이스카레 등의 값을 따져보면서 거칠게나마 1920년대 음식 가격에 대해 확인을 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선술집에서 술 한 잔에 안주 하나를 먹는 5전은 식민지시대 편도 전차비와 같은 가격이었다. 저렴한 식당에서 라이스카레를 먹는 값인 15전은 당시 가장 비싼 담배인 ‘해태’의 가격이었다. 냉면 값인 20~25전은 ‘조선방적공사’에서 하루에 12시간 일한 여직공이 받은 초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³⁰⁾ 식민지시대 음식 가격과 다른 품목과의 비교, 또 그것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은 5장에서 상론하도록 하겠다.

Ⅲ. 미곡가의 추이와 기호 식품의 가격; 1930년대 전반

미곡의 가격, 특히 쌀값은 물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품목이지만 식민지시대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다. 1930년대 초반에 발표된 이광수의 『흙』과 이영근의 『희생』에는 모두 벼 한 섬의 가격이 채 5원도 안 된다는 탄식이 등장한다.³¹⁾ 이기영의 『고향』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벼 한 섬이 5원도 안 된다면 헛농사를 지었다며 안타까워하는

28) 장혁주, 『무지개』, 『동아일보』, 1934.4.12, 3면; 김웅초, 『성녀씨』, 『조선일보』, 1936.11.13, 4면 참조.

29)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11.8, 3면 참조.

30) 『여공생활기』, 『동아일보』, 1934.1.2, 3면.

31) 이광수, 『흙』, 『동아일보』, 1932.8.20, 7면; 이영근, 『희생』, 『조선일보』, 1931.1.22, 4면 참조.

장면이 나온다.³²⁾ 여기서 ‘섬’은 벼를 가늠하는 단위인데, ‘석’과 같은 분량이다. 한 섬이나 1석은 열 말, 곧 180L를 가리킨다. ‘되’로 환산하면 한 섬이나 1석은 100되에 해당된다.

이들 소설에서 거칠게 언급되듯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0년을 전후로 쌀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1920년에 비해 1/3 정도까지 떨어졌다. 쌀값이 급격히 인하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자체가 둔화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931년 4월 13일 쌀값이 급락해 물가가 하락하니 집값, 땅값까지 떨어진다는 『동아일보』의 기사 역시 이를 가리킨 것이다.³³⁾

그런데 1930년 무렵 쌀값은 왜 그렇게 폭락했을까? 당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 데는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보다 일찍 일본에서는 1918년 ‘쌀 폭동’이 일어난 데 이어 그 여파로 1920년대 초반 불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식량과 원료 부족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식민지 조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조선에는 이미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식량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19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제1차는 1921년부터 5개년, 제2차는 1926년부터 10개년의 계획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어 나가자 식민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30년에 이르자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1930년 즈음 쌀값이 폭락하고 다른 물가 역시 떨어지자 일본은 1934년 2차 산미증식계획을 멈추는 상황에 이르렀다.³⁴⁾

1930년을 전후해 산지에서 벼 한 섬이 5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쌀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전반기 즈음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했던 가격은 얼마였을까? 채만식은 1933년 5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인형의 집을 나와서』라는 소설을 연재했다. 소설은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노라가 남편의 전제에 반항해 집을 나오는

32) 이기영, 『고향』, 『조선일보』, 1934.6.8, 3면 참조.

33) 「감하는 고사하고 지세를 배증」, 『동아일보』, 1931.4.13, 2면 참조.

34) 정용석, 「식민지기 1인당 쌀 소비량과 연관변수들과의 관계구조와 그 변화의 의미」, 『경제사학』 71호, 경제사학회, 2019, 372~387면 참조.

데서 마무리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작가는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만약 조선이라면 집을 나온 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물었던 것이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고향에 내려갔던 노라는 옥순이와 함께 경성으로 돌아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과외 공부 시키는 일을 한다. 과외를 해서 처음 월급을 받자 노라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본다.

그는 40원 쓸 곳을 베풀어 보았다.

쌀을 서 말만 사고 그러면 그것이 6원 쯤 될 것이고, 나무를 솔가지로 한 바리만 사자면 2원 50전 그리고 하루에 20전 평균을 쳐서 한 달 반찬값으로 6원—이렇게 하여 15원이면 한 달은 살아갈 것이고 8원으로는 저당 잡힌 것을 찾고 나머지 15, 6원 되는 것으로는……?35)

한편 이북명은 1935년 9월 잡지 『신동아』에 「민보 씨의 생활표」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민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료를 내기도 벅차게 되자 N읍의 XX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로 일한다. 「민보 씨의 생활표」 중간에는 민보가 수입과 지출을 작성한 생활표가 등장한다. 먼저 수입은 민보가 야근까지 착실히 하면 26원 75전을 받는다고 했다. 다음 지출은 집세 2원, 전등료 60전, 장작 2원, 식료품 1원 등과 함께 쌀값으로 7원 50전 등 모두 27원 30전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³⁶⁾

그런데 「민보 씨의 생활표」에는 쌀값이 7원 50전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것이 쌀을 얼마나 사는 데 쓴 돈인지 알기 힘들다. 그런데 다행히 소설에는 3원 20전으로 된 전월 외상이 지난 달 쌀 세 말 반을 사는 데 든 8원 75전 중의 일부라고 밝혀져 있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는 쌀 세 말에 6원, 「민보 씨의 생활표」에서는 세 말 반에 8원 75전이라고 되어 있다. 두 소설을 통해 1930년대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하는 가격이 한 말에 2원에서 2원 50전 정도였음을 말해준다.

1936년 1월 『동아일보』에 실린 정비석의 「줄곡제」에는 지계꾼인 언삼이가 두 사람 아껴 먹으면 하루에 쌀 한 되를 조금 넘겨 먹는다고 되어 있다.³⁷⁾ 그렇게 계산하면

35)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조선일보』, 1933.7.28, 3면.

36) 이북명, 「민보 씨의 생활표」, 『신동아』, 1935.9, 197~198면 참조.

37) 정비석, 「줄곡제」, 『동아일보』, 1936.1.28, 5면 참조.

한 달에 4말을 먹게 되어 8원에서 1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당시 지계꾼의 한 달 수입이 18원이었다는 기사를 고려하면, 쌀값 8원에서 10원은 언삼이를 비롯한 하층 계급들에게는 부담이 큰돈이라 주식을 좁쌀, 콩, 감자 등 다른 곡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⁸⁾ 「줄곡제」에서 언삼이 역시 어쩔 수 없이 좁쌀에다 무 줄기를 넣고 죽을 쑤어서 끼니를 해결한다.

김유정은 1935년 7월 10일에서 31일까지 『조선일보』에 「만무방」이라는 소설을 연재한다. 「만무방」의 중심인물은 응칠이인데, 그는 가을에는 송이를 캐러 다닌다. 캔 송이를 2, 3일 모아 시장에 나가 송이를 팔면 25~40전을 받아 그것으로 좁쌀 서너 되를 산다고 했다.³⁹⁾ 이를 통해 좁쌀의 경우 한 되에 7전에서 10전 정도로 쌀의 1/3~1/4 정도의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술», 「동백꽃」 등 김유정의 소설에는 주식으로 감자를 먹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는 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었다.

식민지시대 공설시장의 물가에 대한 기사를 참고하면, 쌀 한 석의 가격은 오히려 1920년에 가장 비싼 45원이었다. 1920년대 중반 35원으로 내렸다가 가장 싼 1930년 전후에는 15원까지 폭락했다. 1930년대 중반에는 25원으로 회복되었는데, 1930년대 말에는 다시 인상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것과 맞물려 군량미 지원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섰던 1938, 1939년이 되면 다시 39~40원까지 올랐다. 앞서 식민지시대 물가를 산정하는데 쌀값이 유효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언급은 여기에서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식민지시대 외식 메뉴 가운데 조선음식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냉면, 장국밥과 함께 설령탕이 있었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는 거간꾼 석 서방이 윤 직원에게 인사차 식사는 했냐고 묻자 윤직원은 대뜸 안 먹었으면 설령탕 한 뚝배기라도 사 줄 것인지 묻는다.⁴⁰⁾ 이를 통해 당시 설령탕이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하는 대표하는 메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전반기에 설령탕의 가격은 어느 정도나 했을까? 설령탕의 가격에 대해서는 대개 설령탕은 싼다, 10전 정도였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을 뿐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38) 「공황의 침단을 걷는 노동계급 생활 전선」, 『동아일보』, 1931.1.1, 18면 참조.

39) 김유정, 「만무방」, 『조선일보』, 1935.7.18.

40) 채만식, 『태평천하』, 『조광』, 1938.1~9. 여기서는 『태평천하』(문학과지성사, 2005), 99~100면 참조.

바 없다.

설령탕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는 드문 소설 두 개가 이태준의 「고향」과 이석훈의 「회색가」이다. 이태준은 1931년 4월 21일부터 8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고향」이라는 소설을 연재한다. 소설의 중심인물은 윤건인데,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그는 여관에 머물면서 「신간회」, 언론사 등을 찾아가 얘기를 했지만 번번이 쑥스러운 꼴을 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러는 동안 지니고 있던 돈마저 다 쓴 윤건은 ‘오늘부터는 13전짜리 설령탕 값도 떨어지고 말았다’고 쓸쓸하게 웃는다.⁴¹⁾

이석훈은 『조선일보』에 1936년 5월 8일부터 15회에 걸쳐 「회색가」라는 소설을 연재하는데, 거기에서도 여관비가 떨어져 고생하는 일화가 등장한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최 군은 돈이 떨어져 여관에서 팔시를 당하다가 친구 성해의 기억을 떠올린다. 성해 역시 여관에서 기식했는데 주인으로부터 거둬 밥값 독촉을 받아 여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헤맸다고 했다. 그때 성해는 종로나 본정으로 다니다가 해가 저물자 친구와 함께 마지막 남은 30전을 가지고 설령탕을 먹으러 갔다는 것이다.⁴²⁾ 위의 소설들은 1931년, 1936년 당시 설령탕의 값이 13전, 15전이었음을 말해준다.

1920년대 소설 가운데는 2장에서 검토했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광수의 「천안기」 등에서 설령탕이 등장한다. 「운수 좋은 날」에서는 한 달 전부터 앓기 시작한 아내가 일을 나가는 김 첨지에게 설령탕 한 그릇만 사달라고 애원한다. 선술집에 들렀다가 늦게서야 집으로 가던 김 첨지는 아내 말을 떠올리고 설령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 「천안기」는 이광수가 1926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이었다. 「천안기」는 ‘나’와 파리를 중심인물로 해 당시 세태를 풍자한다. 소설에서 ‘나’는 ‘부평초’라는 여자 집에 놀러갔다가 뺨을 맞고 쫓겨나게 된다. 아침도 못 먹고 쫓겨나 요기하러 들른 곳이 설령탕집이었다.⁴³⁾

1920년대 중반 「운수 좋은 날」에서 김 첨지가 사 가지고 갔던, 또 「천안기」에서 ‘나’가 아침으로 먹었던 설령탕의 가격은 15전이였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1920년대 인데도 이태준의 「고향」이나 이석훈의 「회색가」에 등장하는 설령탕 값보다 비싸거나

41) 이태준, 「고향」, 『동아일보』, 1931.4.26, 4면 참조.

42) 이석훈, 「회색가」, 『조선일보』, 1936.5.9, 4면 참조.

43) 이광수, 「천안기」, 『동아일보』, 1926.2.28, 6면 참조.

같았다.⁴⁴⁾ 거기에도 앞서 상론했던 1930년을 전후로 쌀값이 폭락했던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다. 쌀값이 떨어지자 음식점의 주인들이 스스로 ‘물가감하운동’을 벌였는데, 이태준의 「고향」에서 설렁탕 가격이 13전이었던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⁴⁵⁾

냉면, 설렁탕과 함께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외식 메뉴였던 장국밥의 가격은 어땠을까? 장국밥은 고기국물에 밥을 말고 그 위에 구운 산적을 얹어주는 음식이었다. 장국밥은 설렁탕과는 달리 양지머리 등 2, 3가지만을 넣고 국물을 우려내 설렁탕보다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았다.⁴⁶⁾ 장국밥의 가격 역시 냉면, 설렁탕과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 등락을 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등락에도 불구하고 장국밥은 냉면을 비롯해 비빔밥, 떡국, 대구탕반 등과 같은 가격에 설렁탕보다 5전 정도 비쌌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⁷⁾

박태원은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연재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제목처럼 구보 씨의 하루를 그린 소설인데, 소설에는 구보 씨가 장곡천정에 위치한 다방 ‘낙랑파라’를 방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보 씨는 커피 한 잔과 담배 하나를 시키고는 낙랑파라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는 다방을 나오면서 백동화 두 푼, 곧 20전을 탁자 위에 놓고 나온다.⁴⁸⁾ 여기서 낙랑파라 등 당시 경성의 다방에서 커피 값이 10전이었고 구보 씨가 시켰던 담배가 10전 짜리 ‘피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랑파라에서는 커피와 함께 홍차가 10전이었고, 소다수는 라무네가 10전, 시트론과 사이다가 13~15전 정도 했다. 아이스크림, 코코아, 칼피스 등은 15전 안팎이었다.

44) 박현수, 「경성의 명물과 거친 음식의 사이, 설렁탕」, 『대동문화연구』 11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451~472면 참조.

45) 1920년대 설렁탕 값에 관해서는 「올랐다가 떨어진 설렁탕값」, 『매일신보』, 1923.9.9, 3면; 「설렁탕 5전이 올랐다」, 『조선일보』, 1925.7.22, 2면; 「음식점 매매단위 저하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1928.11.27, 8면 참조.

46) 이서구, 「開化百景」, 『조선일보』, 1968.9.1., 4면; 박종화, 「洪景來」, 『동아일보』, 1948.12.4, 2면 참조.

47) 당시 관청의 지시에 따라 냉면, 장국밥, 어복장국, 떡국, 대구탕반, 만두, 상밥, 비빔밥 등은 가격을 20전에서 15전으로 인하했으며 설렁탕은 13전으로 했으나 다시 10전까지 내린 곳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시내 각 음식점 요리도 감하」, 『동아일보』, 1930.11.12, 2면 참조.

48)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조선중앙일보』, 1934.8.14., 3면.

커피가 10전이었던 것은 192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923년 8월 12일 이서구는 『동아일보』에 「월미도의 일야」라는 글을 발표한다. 「월미도의 일야」에서 이서구는 월미도 유원지에 있는 간이매점에서 커피를 10전에 팔고 있으며, 다른 메뉴는 아이스크림이 20전, 과자가 20전이라고 했다. 또 스시 50전, 샌드위치 50전이라고 식사 가격 역시 언급하고 있다.⁴⁹⁾

커피 가격이 10전이었던 것은 1930년대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937년 7월 1일 『조선일보』에 실린 「다방의 공전화도 안 된다」라는 글에는 커피 가격이 10전인데 전화 사용료가 3전이라며 돈을 내지 않고 이용했던 전화 사용료를 그때부터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⁵⁰⁾ 그런데 1938년 이후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들어서면서 커피 역시 서양 물품이라는 명분으로 20전으로 인상되었다.⁵¹⁾ 하지만 커피 가격의 경우는 전시 체제를 제외하고는 식민지시대에 10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앞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낙랑파라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10전 짜리 피종이었음을 확인했다. 채만식이 1934년 5월에서 7월까지 『신동아』에 연재한 「레디메이드 인생」에는 당시 담배의 종류와 가격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레디메이드 인생」에 등장하는 P는 고등교육을 마쳤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빈궁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는 담배를 사기 위해 동십자각 옆 담뱃가게에 들렀는데, 아래의 인용은 P와 담뱃가게 주인의 대화이다.

“담배 한 갑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 가게 주인이,

“네, 마릅니까?” 묻는다.

P는 담배 가게 주인을 한번 거둬 떠 보고 다시 자기의 행색을 내려 훑어보다가 심술이 버쩍 났다. 그래서 잔돈으로 꺼내려는 것을 일부러 1원짜리로 꺼내려는데 담배 가게 주인은 벌써 마코 한 갑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해태 주어요.”

P는 돈을 들이 밀면서 불먹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 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네—’ 하고는 마코를 해태로 바꾸어 주고 85전을 거슬러 준

49) 이서구, 「월미도의 일야」, 『동아일보』, 1923.8.12, 6면.

50) 「다방의 공전화도 안 된다」, 『조선일보』, 1937.7.1, 2면.

51) 「양등된 일상필수품」, 『동아일보』, 1938.6.2, 2면 참조.

다.⁵²⁾

소설에서 P는 담뱃가게 주인이 자신의 행색을 보고 ‘마코’를 주는 줄 알고 ‘해태’로 달라고 한다. P는 겨울 외투를 전당포에 잡히고 겨우 4원을 구했는데, 그 중 15전을 담뱃값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은 1934년 당시 비싼 담배가 ‘해태’였으며 가격이 15전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원래 사려고 했던 ‘마코’는 얼마였을까? 가장 저렴했던 ‘마코’는 5전이었다. ‘해태’와 ‘마코’ 중간의 담배가 구보 씨가 낙랑파라에서 구매했던 피존이었다.

담배는 조선시대 일본에서 고추, 호박 등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조선에서는 서구와 달리 잎을 말아 피우는 담배가 아니라 넣어 피우는 곱방대가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개화기에 들어서면 곱방대가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간소화되는 등 흡연에서도 편리를 추구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말아 피우는 궤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전매 제도를 운영하면서 담배는 술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각되었다. 시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담배를 생산, 판매했지만, 식민지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담배는 앞서 확인했던 마코, 피존, 해태 등이었다.⁵³⁾

앞서 염상섭이 1931년에 『조선일보』에 『삼대』를 연재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삼대』의 서두 부분에서 조덕기를 찾은 김병화는 서둘러 담배부터 얻어 피우는데, 그것 역시 피존이었다.⁵⁴⁾ 천석꾼 조의관의 손자임을 고려하면 의외일 수도 있는데, 『삼대』에 그려진 조덕기의 합리적인 성격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소설의 후반부에서 병화, 필순의 아버지 등이 검거되자 필순이가 자신도 끌려가면 가게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거기에서 필순은 자신의 모친은 ‘피존’ 한 갑에 10전, ‘마코’가 5전인 것밖에 모르고 ‘해태’만 되어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한다. 여기에서 당시 ‘해태’를 피우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삼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해태’를 피우는 드문 인물은 흥경에였다.

52)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신동아』, 1934.5, 234면.

53) 민병덕, 『우리 역사문화사전』, 노마드, 2020, 175~193면 참조.

54)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1.1, 13면 참조.

1923년 12월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몽중몽』에서도 5전을 주면 쓴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담뱃값은 1920년대 전반기에도 같았음을 알 수 있다.⁵⁵⁾ 실제 식민지시대 담배는 커피와 함께 다른 품목과는 달리 시기별로 크게 변화가 없던 상품이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다른 품목들은 20~30% 인상된 외식 비에서 두, 세 배 오른 집값이나 금값처럼 정도는 다르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담배나 커피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소다수, 칼피스, 맥주 등의 공산품이나 전차요금 정도였다.

이 장에서는 미국, 설령탕, 커피 등의 값을 검토하면서 1930년대 전반의 음식 가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1930년대 초, 중반 쌀 한 말 가격인 2원에서 2원 50전은 화장품 외판원이나 가게 점원의 월급의 1/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3~15원 정도 했던 설령탕 가격은 담배 피존과 해태의 중간 가격 정도였다. 또 전시 체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함없이 커피 가격 10전은 냉면이나 장국밥의 절반 정도이자 선술집에서 술 두 잔에 안주 두 점을 먹는 가격이었다. 식민지시대 다른 물가와 비교, 또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5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V. 고급 음식과 거친 음식 가격의 간극; 1930년대 후반

1930년대 후반 경성의 고급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김말봉은 1937년 3월 31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선일보』에 『짚레꽃』을 연재했다. 『짚레꽃』의 중심인물은 정순으로, 그녀는 민수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곧 어긋나는데, 경애가 민수를, 또 경구가 정순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짚레꽃』은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되는데, 그러던 가운데 정순, 민수, 경구, 경애 일행은 조선히otel 식당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조선히otel 식당은 경성 나아가 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고급음식점이었고, 이 글의 관심과 관련해서는 가장 비싼 음식점이기도 했다. 조선히otel 식당의 중앙에는

55) 박영덕 역, 『몽중몽』, 『조선일보』, 1923.12.12, 4면 참조.

홀이 있고, 한실, 양실과 같은 방도 마련되어 있었다. 방은 카펫과 벽을 와인색으로 장식해 하얀 식탁보와 대조가 되게 했는데, 처음 방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손님은 긴장해서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했다고 한다.⁵⁶⁾

조선폭텔이 개장을 한 것은 1914년 10월 10일이었다. 조선폭텔은 부지 6,700평, 건평 58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서양식 석조 건물로 준공되었다. 조선폭텔의 설계는 독일인 ‘게오르크 데 랄란데(Georg de Lalande)’가 담당했는데, 그는 이후 경성역, 총독부 신청사의 설계 역시 맡았던 인물이다. 지금과는 달리 고층 건물이 없었던 당시에는, 3층 건물이었음에도 조선은행, 경성일보사 건물과 함께 경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⁵⁷⁾

『찔레꽃』에서는 정순, 민수, 경구, 경애 일행이 조선폭텔을 방문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래의 인용은 네 사람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다.

보이가 와서 저녁 준비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네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민수 씨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냅킨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정순의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질서 없이 떨리고 경구가 웃으면서 무어라고 자기를 보고 말을 했건만 물론 알아듣지 못한 채 억지로 웃어 보이려는 정순의 입술에는 가느다란 경련이 지나갔다.

민수는 빵을 툇 떼어 버터를 바르면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⁵⁸⁾

인용에서 정순은 손이 떨리고 입술에 경련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민수 역시 빵조각이 마른 가죽처럼 느껴지는데, 경구가 정순을, 또 경애가 민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글의 관심은 정순이 냅킨을 무릎 위에 올리고 민수가 빵을 떼어 버터를 발라서 입에 넣었다는 부분에 놓인다. 소설이 연재될 때 삽화에는 정순과 경구가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56) 이광수, 『유정』, 『조선일보』, 1933.10.4, 3면 참조.

57) 정영효, 「조선폭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323~341면 참조.

58) 김말봉, 『찔레꽃』, 『조선일보』, 1937.7.21, 4면.

『절레꽃』에서 네 사람이 먹었던 음식이 준비된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는 코스 요리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선호텔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가 정통 프랑스식 코스 요리였다.⁵⁹⁾

조선호텔 식당의 음식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1931년 8월 16일부터 12월 29일 『조선일보』에 연재된 심훈의 『불사조』는 조선호텔의 음식 값과 숙박비가 나타나 있는 드문 소설이다. 소설에서 계훈은 독일 여성 줄리아와 함께 조선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불사조』에는 코스 요리의 가격이 아침, 점심, 저녁 달랐다고 했는데, 각각 1원 50전, 2원, 3원 50전이라고 되어 있다. 저녁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당시 설렁탕 열다섯 그릇을 넘는 가격이었다.⁶⁰⁾

1932년 조선호텔을 소개하는 팸플릿의 식당 가격표에는 코스 요리의 경우 아침이 1원 75전, 점심이 2원 50전, 저녁이 3원으로 되어 있다. 『불사조』와 비교해 보면 아침, 점심은 조금 비싸졌고 저녁 가격은 오히려 내렸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단품 요리도 제공이 되어 커피와 홍차는 40전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코스요리가 각각 50전 정도 올랐으며, 단품 요리는 80전에서 1원 정도 했다고 되어 있다.⁶¹⁾

‘우동(饅飩)’과 ‘소바(蕎麦)’는 일본 국수를 대표하는 것이다. 거칠게 구분하면 우동은 밀가루로 만들어 밝은 색이고, 소바는 메밀가루로 만들어 우동보다 어두운 빛을 지닌다. 우동을 즐겨 먹던 일본 사람들이 17세기 말부터는 소바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에도(江戸) 시대를 거치면서 소바 가게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소바가 우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소바 가게에서는 소바를 주로 팔면서 우동도 파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⁶²⁾

〈그림 3〉 1932년 조선호텔을 소개하는 팸플릿의 표지와 식당 가격표임. 이미지의 출처는 『경성조선호텔팸플릿』(조선총독부철도국, 1932.)임.

59) 조선호텔 코스요리의 가격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박현수, 『식민지의 식탁』, 이숲, 2022, 264~279면 참조.

60) 심훈, 『불사조』, 『조선일보』, 1931.8.19, 5면.

61) 조선총독부철도국, 『경성 조선호텔 팸플릿』, 1932, 1~4면.

62) 岡田哲·이윤정 역, 『ユムギの食文化を知る事典』, 뿌리와이파리, 2006, 242~275면; 大久保洋

이태준은 1940년 3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선일보』에 『청춘무성』을 연재한 바 있다. 『청춘무성』은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교목 원치원과 학생 고은심, 최득주 등 세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설에서 은심은 정혼자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 도중 도쿄에 머물던 친구 정선의 집에 묵게 된다. 정선은 자기 집에 은심을 두고 학교에 가면서 집 근처에 소바집이 있으니 거기서 점심을 먹으라고 얘기한다.⁶³⁾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에도 신철이가 ‘우미관’ 앞에서 ‘가케우동(掛けうどん)’을 먹는 대목이 등장한다.⁶⁴⁾ 이들 외에도 「뽕 맛은 기록」, 「보리밭 삽화」 등에도 우동이 등장하는데, 이들 소설에서 우동의 가격은 모두 5전 안팎으로 나온다.

5전은 당시 즐겨 찾던 조선음식인 설렁탕의 1/3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가장 저렴한 음식이었던 ‘호떡(胡餅)’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식민지시대에는 중국음식점에서도 중국 우동을 판매했다. 지금과 달리 덴푸라, 잡채와 함께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가 우동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중국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우동의 가격은 15~20전 정도였다.⁶⁵⁾ 그런데 일본 우동이나 소바는 어떻게 5전이라는 싼 가격에 팔 수 있었을까?

앞서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살펴보면서 신철이가 우미관 앞에서 가케우동을 먹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소설에서 신철이는 두 그릇을 서둘러 먹고서야 조금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한다. 우동이나 소바를 먹는 방식이나 가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설은 『별은 창마다』이다. 『별은 창마다』는 이태준의 작품으로, 1942년 1월에서 1943년 6월까지 『신시대』에 연재된 소설이다. 소설의 중심인물은 정은인데, 그녀는 도쿄에서 하영과 함께 소바 가게를 찾게 된다. 하영은 정은에게 ‘모리소바’와 ‘가케소바’ 중 어느 것을 먹을 것인지 묻는다. 정은이 각각 하나씩 먹겠다고 하자 하영도 정은과 같이 시킨다. 그런데 하영은 모리소바와 가케소바를 한 그릇 씩 먹고 나서 다시 가케소바를 하나 더 시켜 먹는다. 두 사람이 소바를 모두 다섯 그릇 먹은 셈이었다.⁶⁶⁾

子·이언숙 역, 『江戸のファーストフード』, 청어람미디어, 2004, 33~42면 참조.

63) 이태준, 『청춘무성』, 『조선일보』, 1940.5.26, 4면 참조.

64)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11.09, 3면 참조.

65) 「천내리에도 물가를 감하」, 『동아일보』, 1930.12.5, 6면 참조.

66) 이태준, 『별은 창마다』, 『신시대』, 1942.1~1943.6. 여기서는 『이태준전집』 3, 서음미디어, 1998, 51~52면 참조.

이를 통해 당시 가게에서 판매했던 우동이나 소바 모두 양이 적어서 성인들의 경우에는 몇 그릇씩 먹어야 배가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동이나 소바를 5전 안팎에 팔았던 이유 역시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우동이나 소바의 양이 적었던 것은 우동집이나 소바집이 대개 술집과 겸해 있었던 것과도 관련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먹은 후 간단하게 요기하기 위해 먹었기 때문에 양을 적게 하고 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1930년대 중, 후반 맥주의 가격은 얼마나 했을까? 김웅초는 1935년 5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선일보』에 「망부석」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다. 김웅초는 본명이 김규택으로, 주로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던 인물이다. 1930년대 중반부터 가끔씩 삽화와 함께 글도 썼는데, 소설 「망부석」 역시 그 하나였다. 「망부석」의 중심인물은 재호인데, 그는 친구인 빠드렁니와 함께 다옥정에 위치한 바(bar) ‘무-랑’을 찾는다.

두 사람은 술값 걱정 때문에 값싼 술집에 들른 후 ‘무-랑’을 찾았는데,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재호는 미리 술값을 계산해 본다. 맥주는 한 병에 50전이라서 다섯 병을 마시면 2원 50전, ‘스키다시’는 2인분에 40전. 10전으로는 담배 한 갑을 사기로 했다.⁶⁷⁾ 지금과 달리 ‘스키다시’도 사야 했다는 것, ‘낙랑파라’와 마찬가지로 빠에서도 10전 짜리 담배 ‘피존’을 팔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호가 짠 예산에서 이 글의 주된 관심은 1930년대 중반 바에서 맥주 값이 50전이었던 데 놓인다.

앞서 우동과 소바 값을 확인하면서 이태준의 『청춘무성』을 검토한 바 있다. 『청춘무성』에서 득주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며 ‘마이디어’라는 바에서 일한다. 득주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서 마음이 쓰인 치원은 득주가 일하는 마이디어를 찾는다. 치원은 득주의 얘기를 듣기 위해 맥주 2병과 오징어 한 접시를 시켰는데, 계산을 하면서 1원 80전을 냈다.⁶⁸⁾ 1930년대 말 바에서 안주는 대개 40전에서 60전 정도 했으니, 맥주 한 병의 가격은 60전에서 70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1935년에 발표된 「망부석」과 1940년에 연재된 『청춘무성』을 비교해 보면 1930년대 중반에서 말 즈음 바, 카페 등 술집에서 맥주 값이 50전에서 60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1922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실린 「평양공설시장물가」나 1924년

67) 김웅초, 「망부석」, 『조선일보』, 1935.5.26, 4면.

68) 이태준, 『청춘무성』, 『조선일보』, 1940.4.16, 4면.

5월 1일 같은 신문에 실린 「홍행장의 물가 일정하게 작정」 등을 보면 1920년대 맥주 가격은 소매점에서 30전, 술집에서 45전 정도 했다.⁶⁹⁾ 1929년 5월 29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철 맞는 맥주 35전 균일」, 또 1931년 6월 11일 같은 신문에 실린 「마산시 장물가」 등을 보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전반에 이르러 맥주 값이 소매점 35전, 술집 50전으로 5전 정도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⁰⁾

그런데 앞선 가격은 1938년 정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⁷¹⁾ 전시 체제를 제외하면 식민지시대 카페나 바에서 팔았던 맥주의 가격은 40전에서 50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커피와 홍차가 10전, 사이다가 15~18전, 칼피스가 18~20전 정도 했음을 고려하면 맥주 값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음식 값과 비교해 보면 비프스테이크나 비프스튜보다는 싼고 백화점식당의 런치와 비슷한 가격이었으며, 냉면, 비빔밥, 장국밥 등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비쌌다.

〈표 2〉 1930년대 음식의 가격과 등장 소설

음식	가격	등장 소설	비고
쌀	한 말 2원~ 2원 50전	『인형의 집을 나와서』, 「민보 씨의 생활표」	
커피	한 잔 10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930년대 전시체제에는 20전으로 인상됨.
담배	마코-5전, 피죤-10전, 해태-20전	「레디메이드 인생」, 『삼대』	식민지시대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음.
조선포텔 코스요리	1원 75전~3원	『찔레꽃』, 『불사조』	아침-1원 75전, 점심-2원 50전, 저녁-3원
우동, 소바	5전	『청춘무성』, 『인간문제』	양을 적게 해 싸게 팔았음.

3장에서 쌀값을 다루면서 식민지시대 물가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준거가 되기

69) 「평양공설시장물가」, 『동아일보』, 1922.9.18, 4면; 「홍행장의 물가 일정하게 작정」, 『동아일보』, 1924.5.1, 3면; 유지영, 「평양인상」, 『동아일보』, 1926.8.20, 3면 참조.

70) 「철 맞는 맥주 35전 균일」, 『동아일보』, 1929.5.29.; 「마산시장물가」, 『동아일보』, 1931.6.11.

71) 「맥주 가격 인상 업자측 당국에 신청중」, 『동아일보』, 1938.3.8.; 「조선의 현시가는 부당 강제로 인하할 방침」, 『동아일보』, 1939.4.6, 2면 참조.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금값은 어떠했을까? 금값 역시 물가 수준이나 추이를 따지는 데 효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식민지시대 금값은 쌀값과는 다르게 변동되었지만 물가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채만식은 1939년 6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매일신보』에 『금의 정열』이라는 소설은 연재한 바 있다. 작가의 소설로는 『태평천하』, 『탁류』에 비해 주목되지 않는 작품으로, ‘금’의 정열이라는 제목처럼 1930년대 조선에 일었던 금광 열풍을 다루고 있다. 『금의 정열』의 중심인물 ‘상문’은 지방에서 금광 개발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가끔 경성에 오면 ‘반도호텔’에 묵으며 금광 사업에 자본을 제공할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느라 여전히 분주하다.

소설의 한편에는 방물장수가 등장하는데, 원래 방물장수는 장식품, 화장품, 바느질 도구, 패물 등 주로 여자에게 쓰이는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을 뜻한다. 그런데 『금의 정열』에서 방물장수가 하는 주된 일은 여염집 여자들에게 금을 사서 중간책에게 다시 파는 일이다. 그러면 중간책은 사들인 금을 다시 접주에게 되판다. 소설에서 방물장수는 금 한 돈에 14원 50전에 사서 중간책에게 18원에 팔고, 중간책은 다시 접주에게 한 돈에 20원에 되팔았다.⁷²⁾ 이를 통해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금 한 돈의 값이 14원 50전에서 20원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20년대나 1930년대 전반기 금값은 어떠했을까? 192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금은가격협정」, 「금시세 협정인상」 등의 기사를 보면 1920년대 전반기 중반 금 한 돈의 가격은 5원 50전에서 7원 정도였다.⁷³⁾ 1933년 4월과 9월 역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금은 돈인가(3)」, 「조선은행 금매입가 변경」 등의 기사는 1930년대 전반기 금값은 한 돈에 9원 안팎이었음을 말해준다.⁷⁴⁾ 『금의 정열』에는 금 시세가 15원에서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에는 금에 투기적인 성격까지 더해져 가격이 급등했을 때였다.

72) 채만식, 『금의 정열』, 『매일신보』, 1939.6.19.~11.19. 여기서는 『채만식전집』 3(창작사, 1987), 241·247·271·273면 참조.

73) 「금은가격협정」, 『동아일보』, 1920.5.22, 3면; 「금시세 협정인상」, 『동아일보』, 1924.11.6, 4면 참조.

74) 김우평, 「금은 돈인가(3)」, 『동아일보』, 1933.4.5, 4면; 「조선은행 금매입가 변경」, 『동아일보』, 1933.9.3, 4면 참조.

이상의 검토는 식민지시대 금의 가격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금의 가격이 다른 물가와 달리 1920년대, 1930년대를 거쳐 3~4배 정도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금값은 1930년 전후 쌀값 폭락에 이어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크게 올랐다. 다른 하나는, 뒤에서 다른 품목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는 데서 언급하겠지만, 1930년대 말에 이르면 금값이 다른 물가의 3배 넘게 비싸졌다는 것이다. 식민지시대 물가 수준이나 변화를 따지는 데 금이 효율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와 관련이 된다.

V. 현재 가격으로의 환산과 다른 품목의 물가

2장에서 4장까지 1920년대, 1930년대 전반기, 1930년대 후반기 음식의 가격에 대해 검토했다. 여기서는 먼저 앞서 검토한 음식들의 시기별 가격 추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먼저 냉면의 가격은 1920년대 20~25전이었던가 1930년 전후 쌀값 폭락으로 15전까지 떨어졌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다시 25전이 되었다. 설렁탕은 1920년대 15전이었던가 1930년 전후 13전까지 내렸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다시 15~20전이 되었다. 장국밥은 냉면과 같은 가격 수준에서 등락을 했다.

라이스카레, 돈가스 등 일반적으로 화양절충의 음식으로 불리는 것들은 20~25전이었던가 15전까지 내렸다가 다시 25~30전까지 인상되게 된다. 조선호텔의 코스 요리는 앞선 음식들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았지만 점심을 기준으로 하면 역시 2원에서 1원 80전으로 내렸다가 다시 2원 50전으로 인상이 되었다. 선술집의 경우 세 시기 모두 술 한 잔에 안주 하나를 곁들여 5전이었던 것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 1930년대 중반 술을 4전, 안주를 2~3전 등으로 따로 받으려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니, 이 역시 다른 가격의 시기별 추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시기별 가격의 변동을 정리해 보자. 먼저 조선음식, 화양절충의 음식, 서양음식 등 모두는 1920년대 기준에서 1930년 전후 25~30% 정도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다가 1933, 4년이 되면 1920년대 가격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어 1937, 8년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30~40% 정도 인상이 된다. 뒤에서 상론하

겠지만 물가 변동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되는 급여 역시 시기별 추이가 위의 변화와 겹쳐진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커피, 맥주, 담배 등 식민지시대를 걸쳐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었던 품목도 있었다. 커피의 가격은 1930년대 말 전시 체제에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10전으로 변동이 없었다. 맥주도 1930년대 말을 제외하면 카페, 빠 등에서 팔았던 가격은 40전에서 50전 정도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담배 역시 식민지시대를 걸쳐 마코가 5전, 피존이 10전, 해태가 15전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가격은, 뒤에서 식민지시대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면서 언급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다른 물가 수준의 2~3배 정도 되었다는 데서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쌀은 1920년대 초반 한 석에 45원이었다가 가장 싼 1930년 전후 15원까지 폭락했다. 1930년대 중반에는 25원으로 회복되었는데, 1930년대 말 전시 체제에는 다시 인상이 되었다. 전시 체제를 제외하면 식민지시대를 통해 1920년대 초반의 쌀의 가격이 가장 비쌌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물가 수준이나 추이를 따지는 데 유효한 준거로 사용되는 쌀값이 식민지시대에는 예외였다는 언급은 이를 가리킨 것이었다.

앞서 금값 역시 쌀값과는 다르게 변동되었지만 식민지시대 물가를 따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식민지시대 금값은 다른 물가와 달리 1920년대, 1930년대를 거쳐 3~4배 정도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 전후 쌀값 폭락으로 인해 물가가 인하될 때 금값만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 역시 그 하나였다. 쌀값과 마찬가지로 금값 역시 식민지시대 물가를 따지는 데 효과적인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식민지시대의 물가를 현재의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앞서 식민지시대 조선음식 가운데 냉면, 비빔밥, 대구탕 등은 20~25전, 설렁탕은 15~20전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격을 현재의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먼저 이들 음식의 현재 기준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일반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로는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산정 품목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품목이나 빈도에 따라 각각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와 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생활품과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지수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생활물가지수’라

고 한다. 이 글에서 각 품목의 현재 기준 가격은 ‘생활물가지수’를 조사하는 ‘한국소비자원(www.price.go.kr/tprice/)’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⁷⁵⁾

냉면, 비빔밥 등은 20~25전, 설렁탕은 15~20전 등 식민지시대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려면 1원에 50,000~60,000을 곱해 주면 된다. 서양식과 화양절충의 음식의 경우 라이스카레는 20~25전, 비프가스나 돈가스는 25~30전이었고, 비프스테이크나 비프스튜는 40~50전이였다. 이들 음식의 경우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려면 40,000~60,000을 곱하면 되니 앞선 조선음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3〉 1920년대 음식의 가격과 등장 소설

품목	가격	등장 소설	비고
금	한 돈 5원 50전~20원	『금의 정열』	다른 물가에 비해 식민지시대에 걸쳐 3~4배 정도 인상됨.
급여	교사	40~80원	『인형의 집을 나와서』
	은행원	60~80원	『상록수』
	노동자	15~20원	『민보 씨의 생활표』
전차, 버스비	편도 5전	「명일」, 「오열」	학생들은 통학권을 구매하면 5회에 1원 50전임.

조선호텔의 코스 요리는 정식을 기준으로 하면 2원에서 2원 50전이었으니, 이 경우에도 50,000~60,000을 곱하면 현재의 가격인 120,000~150,000원이 된다. 커피나 홍차는 10전, 사이다나 칼피스는 15전이었으니, 이들 음료 역시 40,000~50,000을 곱하면 현재 가격으로 환산되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가격 환산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50,000을 기준으로 40,000~60,000 정도를 곱하면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결론이 산출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당시 조선호텔 코스 요리 가격이 설렁탕을 15그릇의 값을 넘는다고 한 바 있는데, 두 품목 각각이 많이 인상된 현재에도 조선호텔 코스 요리와 설렁탕 가격의 비율은 식민지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두 음식의 가격이 같은 정도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과 50,000 안팎을 곱하는 것이

75)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물가지수’에 관해서는 ‘<https://www.price.go.kr/tprice/>’ 참조.

음식 가격을 현재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맥주와 담배처럼 기준에 맞지 않는 품목도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식민지 시대 맥주는 술집에서 마실 때 50~60전 정도 했고, 담배는 중간 가격인 ‘피존’이 10전이었다. 담배의 경우 식민지시대에는 담배 한 갑에 열 개비가 들어 있어서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다시 2를 곱해줘야 한다. 이를 고려해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맥주의 경우는 17,000~20,000, 담배는 25,000을 곱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당시 맥주와 담배 가격이 다른 음식과 비교할 때 2~3배 정도 비쌌음을 뜻하는데, 그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전매를 했던 맥주와 담배에 다른 품목보다 높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거칠게나마 물가 수준이나 추이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되는 급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는 노라가 과외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보통학교 교사의 월급인 40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⁷⁶⁾ 최독건의 『유린』에서 최 선생은 고등보통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급여로 80원을 받다고 되어 있다.⁷⁷⁾ 앞서 살펴보았던 소설 「냉면」에서 순호는 S신문사의 기자인데 월급으로 70원을 받았다. 1927년 2월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경손의 「백의인」의 중심인물인 기호는 신문사 문예부장으로 일하는데 급여 100원을 받아 하숙비 40원을 주고 동생에게 식비 14원과 용돈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한다.⁷⁸⁾

한편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는 동혁이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밝히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기수가 되어도 40~50원을 받는 데 고작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⁷⁹⁾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노라는 과외 일을 그만두고는 화장품 외판원으로 나서, 하루에 5, 60전, 한 달에 15~18원 정도를 번다. 비슷한 시기 포목점 등 가게 점원의 한 달 급여가 10~12원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조금 많이 버는 수준이라고 했다.⁸⁰⁾

이상에서 소설에 등장한 식민지시대 급여를 정리해 보면 보통학교 교사가 40~60원,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교사가 60~70원, 기자가 60~80원, 은행원이 60~80원,

76)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조선일보』, 1933.7.28, 3면 참조.

77) 최독건, 「유린」, 『동아일보』, 1928.3.1, 3면 참조.

78) 이경손, 「백의인」, 『조선일보』, 1927.2.8, 1면 참조.

79) 심훈, 『상록수』, 『동아일보』, 1935.9.26, 3면 참조.

80) 채만식, 앞의 소설, 같은 신문, 1933.8.7~11, 3면 참조.

기수가 30~40원 정도였다. 식민지시대 급여를 지금으로 환산하려면 교사가 37,500~75,000, 기자와 은행원이 50,000~65,000, 기수가 50,000~62,500을 곱해야 한다. 보통학교 교사를 제외하면 현재로 환산하는 데 앞서 살펴본 음식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음식 가격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는 데 50,000 전후를 곱한 것이 당시 물가를 기증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나 점원 등 하위 계층의 급여는 교사, 기자, 은행원 등과 차이가 난다. 소설에 식민지시대 한 달 수입이 노동자는 15~20원, 화장품 외판원은 12~15원, 가게 점원은 10원 정도였다. 이들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125,000~165,000, 화장품 외판원이 135,000~165,000, 가게 점원이 200,000을 곱해야 한다. 교사, 기자, 은행원 등과는 달리 노동자, 외판원, 점원의 급여를 현재로 환산하려면 125,000~200,000 등 훨씬 높은 숫자를 곱해야 한다. 이것은 먼저 급여가 높은 교사, 기자, 은행원 등과 급여가 낮은 노동자, 외판원, 점원의 급여 차이가 지금의 그것보다 2~3배 정도 되었음을 말한다. 한편 교사, 기자, 은행원의 급여를 현재로 환산하는 데 음식의 가격을 환산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 외판원, 점원 등의 급여 수준이 지금보다 형편없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시대 교통비는 어땠을까? 최독건의 소설 「명일」에는 조선은행 앞에서 전차를 탄 소년이 창경원까지 가는 데 5전을 내는 장면이 등장한다.⁸¹⁾ 전차비가 5전이라는 것은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무영의 「오열」에서도 나타난다.⁸²⁾ 비슷한 시기 한인택의 소설 「동무를 위하여」에는 중학생이나 고등보통학생의 편도 전차비 역시 5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⁸³⁾ 이를 통해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전차 요금도 5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 학생들은 통학권을 구매하게 되면 50회에 1원 50전에 살 수 있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21회권을 회수권으로 사면 1원에 할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1928년 4월부터 경성에서 운행을 시작한 버스 요금도 전차 요금과 같았다.⁸⁴⁾

81) 최독건, 『명일』, 『조선일보』, 1932.11.25, 3면 참조.

82) 이무영, 「오열」, 『조선일보』, 1931.3.3, 4면 참조.

83) 한인택, 「동무를 위하여」, 『동아일보』, 1930.3.14, 5면 참조.

84) 식민지시대 경성에서 전철을 탈 경우 경성 사대문 안은 대개 5전에 갈 수 있었고, 사대문을 벗어나 교외선으로 환승하면 8전 정도가 들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10전, 16전 정도의 비용이 들었음을 말해준다.

식민지시대 이동수단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인력거가 있다. 인력거 요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설로는 앞서 살펴본 현진건의 「운수 조흔 날」이 있다.⁸⁵⁾ 김 침지는 앞집 마님,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태우고 처음에는 30전, 두 번째는 50전을 받는다. 첫 번째 손님은 혜화문에서 혜화정거장까지 1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고 30전을 받았으며, 두 번째 손님은 1.5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고 50전을 받은 것이었다.⁸⁶⁾ 이를 통해 당시 가까운 거리는 인력거의 요금이 1km에 30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인력거에 상응하는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력거 요금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기는 힘들다. 전차의 경우는 지금의 지하철 요금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1구간 지하철 요금을 1,300원이라고 한다면 당시 전차 요금 5전을 지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6,000을 곱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음식 값이나 급여 등이 50,000~60,000을 곱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반 정도가 된다. 그것은 거꾸로 식민지시대 전차 요금이 다른 물가의 두 배 정도 높았음을 뜻한다.

식민지시대에 일본의 시모노세키와 조선의 부산을 연결하는 선박으로 관부연락선이 있었다.⁸⁷⁾ 관부연락선의 운임은 어느 정도나 했을까? 1920년 7월 당시 운임에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논란이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책정된 운임은 일등실 10원 65전, 이등실 7원 10전, 삼등실 3원 55전이였다.⁸⁸⁾ 또 1920년 9월 당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자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기로 하고 책정된 운임은 일등실 9원 30전, 이등실 6원 70전, 삼등실 3원 30전이였다.⁸⁹⁾ 승선권의 등급에 따라 일등실 운임은 삼등실의 세 배 정도였고, 이등실 운임은

85) 인력거가 조선에 유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이승원, 『사라진 직업의 역사』, 자음과모음, 2011, 137~159면 참조.

86) 현진건, 「운수 조흔 날」, 『개벽』 48호, 1924.6, 139~143면.

87) 연락선은 바다, 호수 등의 수로를 횡단하는 배이긴 했지만 그 운항 자체가 양쪽의 육상교통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여기에서는 https://100.daum.net/encyclo_pedia/view/14XXE0024102 참조.

88) 앞서 확인한 대로 1920년 7월 1일부터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결정된 운임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연락선임개정」, 『동아일보』, 1920.7.3, 3면 참조.

89) 원하는 사람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결정한 운임에 대해서는 「연락선임개정」, 같은 신문, 1920.7.22, 3면 참조.

삼등실의 두 배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식민지시대 경성의 주거비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 당시 경성에서도 주거 방식은 크게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나누어졌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염상섭의 『삼대』에는 병화가 가게를 얻어 필순이와 함께 식료품점인 ‘산해진’을 운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가게 하나와 살림을 할 수 있는 방, 부엌 정도가 갖추어진 집의 매매 가격이 나온다.⁹⁰⁾ 또 그보다 먼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같은 작가의 『광분』에서도 여관을 매매하는 비용이 등장한다.⁹¹⁾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는 전세, 월세 등의 가격도 제시되어 있다. 노라는 경성으로 돌아와 옥순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다가 소격동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그 방을 반전세 반월세로 얻게 된다.⁹²⁾ 김말봉의 『밀림』에서는 형순이 죽엽에게 예전 값이 쌀 때 집을 얻었는데 당시에는 주인이 돈을 더 내든지 집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온다.⁹³⁾ 또 인택이 유색에게 돈을 주면서 반으로는 전셋집을 얻고, 반으로는 생활의 방도를 찾으라고 하는 장면도 등장한다.⁹⁴⁾ 이광수의 『애육의 피안』에서는 방 딸린 작은 가게를 하나 전세로 얻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⁹⁵⁾ 한편 김남천의 『맥』에서는 경성의 ‘아마토아파트’의 월세와 임대 방식이 등장해 주목을 끈다.⁹⁶⁾

이들 소설에 등장한 가격을 정리해 보면 1930년대 초, 중반 경성에서 3, 4칸 정도 되는 주택의 매매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세는 매매 가격의 반 정도 되었고, 월세는 매매 2,000원에 30원 정도에 해당되어 매매가의 1.5% 정도 되었다. 같은 크기의 주택이 1920년대에는 매매 1,000원에서 2,000원이었다. 전세와 월세의 가격은 매매의 반과 1.5%인 것은 같았다. 1937, 8년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들어서면서 주택의 가격 역시 크게 인상이 되었다. 1930년대 말에는 매매 3,000원에서 5,000원에 달했는데, 전세와 월세의 계산 방식은 이전과 같았다.

90)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6.20, 4면 참조.

91)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11.5, 5면 참조.

92)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조선일보』, 1933.7.13, 3면 참조.

93) 김말봉, 『밀림』, 『동아일보』, 1938.9.8, 7면 참조.

94) 김말봉, 위의 소설, 같은 신문, 1938.7.31, 3면 참조.

95) 이광수, 『애육의 피안』, 『조선일보』, 1936.7.23, 7면 참조.

96) 김남천, 『맥』, 『춘추』, 1941.2. (284면).

주택의 매매 가격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1920년대에는 600,000을 곱하고 1930년대 말에도 300,000 정도를 곱해야 지금의 주택 가격으로 환산이 된다. 앞서 확인했던 음식 값이나 급여가 50,000~60,000을 곱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의 가격은 그것들에 6배 내지 12배를 다시 곱해야 한다. 이는 식민지시대 주택 가격이 현재와 비교하면 6배 내지 12배 정도로 뛴음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6배 내지 12배 정도 많이 인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을 시작할 때 김동인의 「갑자」를 살펴보면서 복녀가 32전을 받는 송충이 잡이를 나가고, 왕 서방과 관계를 맺을 때는 1원에서 3원을 받았으며, 죽고 나서는 30원을 지불하고서야 묘지에 묻힐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염상섭의 『삼대』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자금 2,000원 때문에 병화를 비롯해 필순이, 그녀의 아버지 등이 장훈의 패거리들과 경찰에게 곤욕을 치루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32전은 냉면이나 장국밥보다 조금 비싼 가격이었다는 것, 1원에서 3원은 술집에서 맥주 몇 병을 마시는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붉은 돈’ 2,000원은 『삼대』 연재 당시 경성에서 3, 4칸 되는 주택의 매매 가격 정도였음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백조』, 『별건곤』, 『신동아』, 『신시대』, 『조광』, 『조선문단』, 『춘추』
조선총독부철도국, 『경성 조선호텔 팸플릿』, 1932
『조선총독부통계연보』 <https://dl.ndl.go.jp/pid/1454691/1/223>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김남천, 백석 외, 『평양냉면』, 가가날, 2018
김화진, 『韓國의 風土와 人物』, 을유문화사, 1973
민병덕, 『우리 역사문화사전』, 노마드, 2020
박현수, 『식민지의 식탁』, 이숲, 2022
이경돈 외,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18
이계형, 전병무 편저, 『숫자로 본 식민지 조선』, 역사공간, 2014
이승원, 『사라진 직업의 역사』, 자음과모음, 2011
이태준, 『이태준전집』 3, 서움미디어, 1998
채만식, 『태평천하』, 문학과지성사, 2005
Dan Jurafsky, 김병화 역, 『음식의 언어-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어크로스, 2015
岡田哲・이윤정 역, 『ユムギの食文化を知る事典』, 뿌리와이파리, 2006
大久保洋子・이연숙 역, 『江戸のファーストフード』, 청어람미디어, 2004
- 김두얼, 「식민지 조선의 회사 수」, 『경제사학』 56, 경제사학회, 2014
박기주,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의 도시 간 물가 및 임금 격차」, 『경제사학』 54. 경제사학회, 2013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쌀 가격의 계절 변동」, 『경제사학』 75, 경제사학회, 2021
박현수, 「경성의 명물과 거친 음식의 사이, 설렁탕」, 『대동문화연구』 11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송규진, 「조선총독부의 사회경제조사 내용분석」,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
이명학, 「일제시기 조선재정통계서의 발행체제와 구성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학회, 2016
정영효,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정용석, 「식민지기 1인당 쌀 소비량과 연관변수들과의 관계구조와 그 변화의 의미」, 『경제사학』 71, 경제사학회, 2019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물가

차명수,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가격」, 『경제사학』 50, 경제사학회, 2011

한국소비자원, 생활물가지수 <https://www.price.go.kr/tpic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 pedia/view/14XXE0024102>

The Price of the Colonial Chosen in the Novel — Focusing on Food Prices

Park, Hyun-soo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colonial era price by examining the price of food in the novel. Without knowing the price shown in the novel,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e tex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life or daily life of people at the time. Looking at Hyun Jin-Gun's <The Lucky Day(운수 좋은 날)> and Lee Gi-Yeong's <The Human Class(인간수업)>, the price of a glass of alcohol at the stand-up bar at the time was 5 jeon. In Kim Nang-Un's novel published in the mid-1920s, a person giving 25 jeon to buy 'cold noodles(냉면)' appeared. In a novel about the Great Tokyo Earthquake, it was said that rice curry was more expensive than 'Udon' or 'Soba'. Chae Man-Sik's <Leaving the Doll's House(인형의 집을 나와서)> and Lee Buk-Myeong's <Mr. Minbo's Household Ledger(민보 씨의 생활표)> tell us that in the first half of the 1930s, rice cost about 2 won per 'Mal(말)'.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promoted by Japan was at work in causing the price of rice to plummet around 1930. In Park Tae-Won's novel, there was a scene where people drink coffee and pay 10 jeon at a coffee shop. Coffee prices were unchanged except for the war footing. In <Wild rose(질레꽃)> by Kim Mal-Bong, serialized in the late 1930s, a course meal in a restaurant at the Chosun Hotel appeared. The prices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were 1 won 50 jeon, 2 won, and 3 won 50 jeon. If you look at the novels of Kim Woong-Cho or Lee Tae-Joon, you can see that the price of a beer at a bar or cafe was about 50 to 70 jeon. During the colonial era, the price of gold was also not an effective way to determine the price. Colonial food prices were reduced by 25-30% around the 1930s from the 1920s standards. In 1933 and 1934, it was restored to the previous price, and in 1937 and 1938, when the war footing occurred, it increased by about 30 to 40%. To convert colonial-era food prices to current prices, 1 won must be multiplied by 50,000 to 60,000. The conversion of colonial-era salaries to the present is also no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andard. To convert housing prices in 'Gyeongseong(경성)' to the present, convert them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물가

to food prices and then multiply by 6 to 12 again.

Key Words : The colonial period, prices, cold noodles, rice prices, coarse meal, beer,
current prices, salaries, house prices etc

